

3. 예수와 석가의 만남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죽음 당함의 사건을 통시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족하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점에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후예들이 그대로 엄존하여 예수를 죽였던 것과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죽음당함을 그때에 가두어놓아서도 안 되고 세진이의 죽음 역시 오늘에 한정시켜버려서도 안 됩니다. 비록 2천 년을 사이에 두었지만 두 사건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른바 맥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시적으로 묶어놓으면 보편성을 잃은 편견적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십자가사건은 기독교의 전유물로 독점되었으며 그 입장에서 해석해왔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진이의 사건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사건으로 인위적이 아닌, 너무도 자명한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진이의 어머니가 2월 18일 악랄한 고문으로 피살된 박종철의 어머니를 찾아 부산으로 간 데서 발단됩니다. 종철이 어머니는 외국의 불교신도로서 그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늘 절을 찾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는 종철이의 죽음당함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얻었을까요? 모름지기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종철이의 죽음보다는 보편적인 인간 고(苦)의 하나인 죽음에 대한 설법에 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생의 무상을 들었을 수 있으며, 윤회적인 시각에서 사즉생(死卽生)이라는 탈역사적인 보편적 설법에 접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죽음의 특유성이 희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필연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통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에 젖은 세진이 엄마가 종철이의 엄마를 찾아 만난 것입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 부둥켜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종교 사이의 이론적 논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서 종철이와 세진이의 죽음을 부활로 체험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 집니다. 여기서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담은 사라지고, 예수와 석가가 만납니다. 생과 사에 대한 인위적인 담은 어디엔가로 사라지고, 삶 자체만이 현실로 남았습니다. 그 삶은 무시간적인, 비역사적인 삶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삶이고, 동시에 빌라도나 전두환이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삶, 세진이나 종철이만이 독점할 수 없는 그런 삶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인식이 바로 우리 한국 땅에서 행동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나는 이 두 어머니가 만나는 장면에서 문득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엄마와 예수를 잉태한 엄마의 마음을 연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루가복음에만 있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세례자 요한도 예수도 처형된 다음에 죽음 또는 죽임에 관한 민중의 정확한 인식인 것입니다. 죽었다는 차원에서 세례자 요한도 예수도 같은 영역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민중들은 죽은 자식을 슬퍼하는 어머니들의 정황이지만,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관한 영상이 아니라 이제 탄생할 새로운 생명이 뱃속에서 뛰고 있는 것을 교감(交感)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토해내는 생명의 정체성과 한 은둔자의 입을 통해 예언되는 그 생명의 역사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홀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이시고
 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 손으로 떠나보내셨도다(루가 1, 51~53:마
 리아의 찬가).

보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의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징으로 세워진 분입
 니다. 또한 슬픔이 날카로운 점과 같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
 다(루가 2, 34~35:시므온의 말).

이 잉태된 생명은 비역사적인, 역사의 혁명을 일으킬, 역동하는 생
 명이며, 동시에 이 생명은 단순한 희망이나 기쁨의 상징이 아니라 슬
 픔과 죽음을 배태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어머니의 만남은 이
 미 과거가 된 한을 품거나 회포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의
 투쟁을 위한 다짐의 만남, 그러므로 죽은 세진이와 종철이가 다시 자
 라 역사를 무대로 싸우게 하려는 만남입니다. 그때 세진엄마는 “이
 모든 현실이 누구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라고 생각
 해요. 세진이가 분신자살한 것이나 종철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이 사
 회는 바로 우리들이 만들어놓은 것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
 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지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음의
 연대성과 동시에 역사 속에서 삶의 연대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꽃 같은 인식은 그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확산되어나갑니
 다. 5월 5일 장례식 때 서울대학교학생회 대표는 조사에서 이렇게 말
 합니다.

그렇게도 바라던 자유! 그렇게도 원했던 민주! 그렇게도 목마르게 찾던 민족해방! 자주통일을 위해 그대는 진정 온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려고 했는가! 역사는 기억하리!

그대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었기에 그 불꽃은 꺼지지 않는 햇불이 되어 영원히 이 강토를 밝힐 것일세!

그리스도교 청년단체에서는 그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아, 누가 우리 김세진 동지를 죽게 했는가! 그것은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비겁과 안일이다. 동지는 이 땅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해 척박한 대지 위에 자신을 거름으로 심으면서 산화해간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양키 고 홈’이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랑처럼 떠벌리던 우리에게 진정한 한·미관계는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서야 한다며 몸으로 실천해 보인 동지의 죽음은 우리의 타성의 죽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며 결코 내릴 수 없는 깃발을 우뚝 솟은 민족해방의 산정에 꽂은 것이다. 동지의 죽음은 지금 여기에서 부활하는 산하, 동트는 산하의 여명을 알리는,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실천을 일깨우는 사자후로 되살아나고 있다.

우리는 분명한 신념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부활의 화산맥은 제3세계로 이동하여, 마침내 한국 땅에서 활화산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은 부활한 예수님의 현시(現示)를 보도하지 않고, 단지 부활의 첫 마당은 갈릴래아라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마당은 이동하여 이제 한국이 된 것이 아닙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양을.”

“어디서? 2천 년 전 갈릴래아에서? 아니, 지금 한국 땅에서.”

우리는 세진이에게서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임당함과 부활을 통한 운동의 화산맥에서 이제 한국 땅의 활화산으로 폭발한 것이 세진이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사건이 아직도 역사를 뒤엎지 못했으니까 제2, 제3의 불꽃이 이어져 터져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팍 막힌 현장에서 수수방관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부활한 세진이는 다시 몸에 기름을 부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것처럼 단순하고 평범한 송광영의 어머니가 이미 예고했습니다.

내 아들이사 대학교 졸업장도 못 받아보고 장개도 못 가보고 땅속에 들어가 썩어버리겠지만, 제 똥 구린 줄이라도 아는 세상이 되기만도 하면이야 광영인 백 번이라도 제몸에 불을 싸지를 거구먼.

4. 보라, 이 사람을

빌라도가 자기 손에 처형될 예수를 사람들 앞에 끌고 나와 “보라, 이 사람을(ecce Homo)!”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불법적인 판결을 내려 이제 처형할 마당에 있는데도 아무런 저항할 능력이 없는 그를 왜 군중 앞에 내세워 “보라, 이 사람을!”이라고 합니까? 예수의 민중은 왜 빌라도의 입을 통해 이런 말을 하게 했을까요? 비록 그를 죽이고 살릴 권한을 그 손에 장악했으면서도 그의 폭력 앞에 그렇게 무능한 그가 끝끝내 알 수 없는 신비에 싸인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의미입니까? 그는 비록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지만 그 자신의 숙명적인 역할을 하소연하기 위해 ‘이 사람을 보라’고 군중에게 정당한 판단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판단